희곡 \_ <반달이 지는 땅>

김도윤 010.3880.8738.

희곡 \_ <반달이 지는 땅>

의도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땅과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이들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전쟁을 상기해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후세에 지속적으로 공연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등장인물 진수와 설아, 수철과 정일의 발걸음을 따라 가다보면 관객들은 전쟁으로 인해 삶이 뒤바뀌는 순간들을 목격 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정되기보다 시대의 흐름과 운명에 휩쓸린 피해자로 풀이될 수도 있다. 한국 전쟁 시기를 살아가는 진수, 혜원, 진이, 정일 네 인물의 발걸음을 따라 가다보면 관객들은 전쟁으로 인해 남매, 연인의 삶이 한 순간 뒤바뀌는 목격 하게 된다. 이들의 여정은 고난과 비극의 연속이지만 어둠의 끝자락에는 빛의 흔적이 존재한다. 전쟁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급하게 결혼하고 며칠 만에 헤어지게 되는 어린 부부, 기억을 잃고 살인 병기로 변해 오빠 앞에 나타난 여동생, 전쟁고아에서 소년병으로 상황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어린 소년, 평범한 소녀를 살인병기로 재탄생 시키는 냉혈한 공산군 사령관 등 전쟁이 낳은 다양한 인물들을 제시한다. 생명이 남아 있는 한 사랑하는 이와 재회할 수 있고 그와 함께 보낼 미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희망적인 결말을 열어둔다.

줄거리

황해도 연백의 지주 송가에게는 진수, 진아 라는 남매가 있다. 미술 공부를 위해 인천에서

유학 중인 진수는 방학을 맞아 연백으로 돌아온다. 진수는 여동생 진아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사랑하는 혜원에게 청혼한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자 송가와 진가는 서

둘러 진수와 혜원을 결혼 시킨다. 진수와 혜원은 인천으로 먼저 떠난다. 공산군이 침범해 오

고 송가와 진가를 비롯한 마을 유지들이 처형된다. 눈앞에서 부모가 목이 ᄌᆞᆯ려 나가는 장면

을 목격한 진아는 정신을 놓게 된다. 마을의 소작농이었던 정일은 유지들을 처형 시킨 뒤 공

산군에 가담한다. 정일은 진아를 죽이지 않고 끌고 간다. 진아 집에서 살던 고아 출신 수철

을 통해 소식을 들은 진수는 입대하고 혜원은 임신한 채로 이모 댁이 있는 시흥으로 간다.

시흥 이모 댁에서 혜원은 기지촌 여성들의 빨래와 낙태아 처리를 도맡게 된다.

산달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혜원은 산에서 낙태아를 뭍다가 혼절한다. 진수는 혜원이 아이

를 낳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오열한다. 일년 후, 북한 저격수 반달의 등장으로 국군이

수세에 몰린다. 반달은 얼굴의 반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데 한 밤중에 어둠 속에서 드

러난 하얀 반쪽 얼굴로 인해 반달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반달은 목표의 오른 쪽 눈을 정확히

쏘아 죽여 국군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화가로서 지형과 풍경을 관찰하는데 탁월한 진수는

자원하여 저격수가 된다. 진수는 반달과 마주하고 빗나간 총알이 반달의 얼굴을 덮은 천을

벗겨낸다. 반달은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 진아다. 진수는 작전을 바꾸어 진아를 구출하기로

결심한다. 공산군 포로를 다그쳐 반달에 대해 알아보는 진수. 진아는 정일에 의해 끌려가

수용소로 보내진다. 기억을 잃은 진아는 공산군 지휘관이 자신을 덮치자 그의 목을 물어뜯

어 죽인다. 하지만 본인은 얼굴 반이 뜯겨져 나가는 중상을 입는다. 처형장에서 간신히 목숨

을 건진 진아는 저격수 훈련을 받는다. 저격수가 된 진아는 목표의 오른쪽 눈만을 정확히 쏘

아 죽이는 악명 높은 반달로 재탄생한다. 다음 날 새벽 진수는 반달의 아지트를 찾아낸다.

그곳에서 진아와 마주친 진수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고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한다. 먹을 것을

손에 든 정일이 오고 세 사람은 뒤엉켜 격전을 벌인다. 기억이 돌아온 진아는 진수를 쏘기

를 거부하고 정일은 진아를 단도로 찌른다. 진아와 진수는 정일을 죽이고 진아는 치명상을

입고 진수의 품에서 죽는다.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진수는 정처없이 행군한다. 우물가에서

길 잃고 울먹이는 작은 아이를 안고 어르는 진수, 그의 앞에 아이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나

타난다. 아이의 엄마는 죽은 줄 알았던 혜원이었다. 진수는 아이(혜진)을 품에 안고 혜원에게

다가간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빙그레 미소 짓고 혜진의 웃음소리가 들리며 막이 내린다.

희곡\_ 반달이 지는 땅

\* 등장인물:

진수: 20세. 황해도 유지의 아들. 미술 공부를 위해 인천과 황해도 연백을 오가며 유학중이다. 일가족을 공산군에게 잃고 국군에 입대한다.

진아: 16세. 진수의 누이. 공산군에 의해 부모가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후 충격으로 기억을 잃는다.

혜원: 20세. 진수의 어린 시절 친구. 진수와 결혼한다.

정일: 24세. 함경도 출신. 혜원을 흠모하지만 대대로 노비 집안이라 다가서지 못한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혜원과 진수가 결혼하자 공산군이 된다.

수철: 12세. 부모를 일찍 여의고 거리를 떠돌다가 윤씨 부부에 의해 거두어진다. 전쟁 후 국군에게 물을 나르거나 잔심부름을 하면서 군대를 따라다닌다.

반달: 북한군 저격수. 얼굴의 반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데 어둠 속에서 나타나면 흰 얼굴반쪽이 보여 반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희생자의 오른 쪽 눈을 맞추어 얼굴 반을 부숴버리는 잔인한 킬러다.

송씨 부부: 진수와 진아의 부모.

윤씨 부부: 혜원의 부모.

혜진: 진수와 혜원의 딸.

그 외 국군 사령관, 북한군 포로, 이씨 대감, 진수의 전우들.

1막

**이 연극은 음악과 조명의 사용이 중요하다.**

**막이 오른다.**

**황해도 연백 평야.**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가 펼쳐진다. 평야는 온통 벼**

**로 뒤덮여 있고 햇빛을 받아 벼가 바람에 일렁일 때마다 반짝인다. 공기도 소리도 평화롭고**

**온화하며 시각적으로 풍요가 넘쳐난다. 30, 40, 50대 마을 남자들과 20대 정일이 농사일을**

**하다가 그늘에서 쉬고 있다.**

마을사람 1: 올해도 풍년이지?

마을사람 2: 아무렴, 햇볕 좋아, 바람 좋아, 물 좋아, 흙 좋아, 게다가 송부자 댁이 살펴주는

연백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리 그냥 등 따숩게 누워서 배 두드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마을사람 3: 오늘은 진수가 돌아오는 날이잖아? 송부자 댁 진수.

마을사람 2: 어른이 다 됐겄어.

마을사람 1: 이 사람아, 진수도 스물이야, 스물. 색시 맞아두 돼.

마을사람 3: 그나저나 사내놈이 그림은 그려서 뭣에 쓰는지 몰라도 유학까지 간다는 거 보면

잘 그리긴 하나봐?

마을사람 4: 그럼, 그럼. 요따만 할 때부터 부모 떨어져서 저기 아랫녘 인천에서 유학하고 배

타고 하와이도 다니고 하는 걸 보면 알아주는 솜씨 아니겠어?

정일: (퉁명스럽게) 그림이야 여기서도 그릴 수 있는데 꼭 양놈의 나라에 가서 유난 떠는 게

무슨 솜씨요? 돈 있으니까 싸돌아 댕기는 거지.

마을사람 2: 또 열등감 들끓는구먼. 이 놈아. 도련님이 너랑 같냐?

정일: 도련님은 무슨 도련님? 지금이 조선시대요? 나두 울 아배 어매 앞에서는 도련님이요.

마을사람 1: (정일을 흘겨보면서) 아유... 또 시작이네. 그나저나 듣자하니 미국으로 아주 간

다는데 그러면 혜원이 아가씨 어찌되는 건가?

마을사람 3: 그르게. 매번 방학 때 만 잠깐 보고 가는 게 전부인데 이번에 진수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콱 물어야 쓰는 거 아닌가? 사냥개가 무는 것 마냥 콱 물고 놓지 말아야 할 텐데!

마을사람 4: 진수가 잘생기고 키 크고 부자에다가 엘레강스하기까지 하니 옆에 좋다고 달려

드는 여자가 한둘이겠어? 그러다 어디서 양연한테 물리면 빼도 밖도 못하게 될 텐데. 혜원이

꼬매 걱정이구만.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되는 거 아닌지...

정일: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혜원이가 어때서? 그딴 환쟁이보다 백배 나아!

마을사람 1: 이놈 웃기고 자빠졌네. 야. 아무리 양반 상놈이 없다지만 너처럼 빌어먹는 놈에

게 혜원이 아가씨가 눈길이나 주겠냐?

**정일과 마을 사람1 싸운다. 몇 사람은 둘을 말린다.**

정일: 두고 봐! 곧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올 거니까!

마을사람 2: (정일의 뒤통수를 때리며) 이 놈아, 너 요즘도 빨갱이들하고 어울리냐? 정신 차

려. 이놈아!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마을사람 4: 아이구. 조용히 해. 송부자 내외 오신다.

**송씨 부부가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송씨 부부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다. 정일, 마지못해 고**

**개를 숙여 인사한다. 송씨 부부는 인성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다.**

마을사람 4: 나오셨습니까? 송 대감.

송씨: (웃으며) 대감이라니...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 오늘 어떤가?

마을사람 4: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지요. 평안 하지요.

마을 여자: (송씨 부인에게) 오늘 도련님 오시는 날이지요?

송씨 부인: 그래요. 오늘 진수가 오지요. 이제 저기 언덕 너머로 보이겠지요.

송씨: 이번에는 유난히 보고 싶구만...

**송씨 부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본다. 진수가 오고 있다. 진수는 세련되면**

**서도 예술가적인 자유가 엿보이는 차림을 하고 있다. 머리엔 모자를 쓰고 있다. 진수의 뒤에**

**는 이젤과 봇짐을 든 하인이 따라오고 있다. 진수는 등에는 물감 등을 담은 화구를 메고 오**

**른쪽 어깨에는 화통을, 왼쪽 팔에는 화지 뭉치를 들고 있다.**

진수: 아버지, 어머니!

**진수는 화통과 화지를 바닥에 내려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다. 송씨 부인이 아**

**들에게 다가가 안아준다. 하지만 아들의 키와 덩치가 더 커서 송씨 부인이 안긴 것 같은 모**

**양새다. 송씨는 잠시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 템포 늦게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

**리고 모자를 들고 머리를 흩트리듯 쓰다듬어준다. 진수는 아버지와 포옹하고 모자를 받아들**

**어 머리 매무새를 만지고 다시 쓴다. 마을 사람들도 다가와 반갑게 인사한다. 진아가 뒤늦게**

**나타난다. 진수가 웃으면서 다가선다.**

진수: 진아, 우리 진아. 숙녀 다됐네.

진아: (새침하게) 오빠, 오랜만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퇴장한다.**

진수: 내 예쁜 꼬마 여동생, 오빠 보고 싶지 않았니?

진아: 꼬마라니? 난 어엿한 숙녀인 걸? 시집가도 된다고!

진수: 어럽쇼? 요 조그만 것이? 처녀 노릇하네! 업고 다니던 게 엊그제인데?

자장자장 자장가 불러주면 오빠 등에 업혀서 잠들곤 했는데!

진아: 업고 다니다니 실례의 말씀! 그런 기억 없는데!!

진수: (놀리듯이) 정말? 이 노래 잊었다고?

깊게 부드럽게 날갯짓하는 천사들 틈에 잠들어라

아무런 일도 없이 난 너를 보호할 터이니 잠들어라...

진아: (토라진 표정으로) 아 몰라! 그림이나 가르쳐줘! 약속했잖아!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

송씨 부인: 진아야, 오빠 쉬어야지...!

진수: 괜찮아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오랜만에 경치도 볼 겸, 진아랑 이야기도 나눌 겸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요.

송씨: (부인에게) 괜찮다잖소. 진아가 오라비가 많이 그리웠던가 보오. 자 들어가서

기다립시다.

**송씨 부부는 남매를 흐뭇하게 바라보다 퇴장한다. 하인이 메고 있던 이젤을 내려서 펼쳐준**

**다. 진수는 화구를 펼치고 화통에서 붓을 꺼낸다. 진아는 이 과정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하인은 그림그릴 준비를 마친 후 퇴장한다.**

진수: 이 쪽의 산은 햇빛 때문에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드리워, 보여?

진아: 응. 응. 보여.

진수: 그림자는 검은색 같지만 잘 보면 빛이 어우러져 있어서 어둠의 농도가 달라, 저기,

나무 기둥 때문에 드리운 그림자와 가지가 드리운 그림자를 봐. 어때?

진아: 색이 달라! 저기는 짙은 회색 저기는 금빛 갈색.

진수: 잘 했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숨 쉬는 생명도 볼 수 있어.

진아: 보여! 보여!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것들! 나무 뒤 숨어있는 아기 사슴, 흐르는 도랑에 작

은 물고기! 오빠, 진짜 신기해!

**진수는 붓과 연필의 각도를 재며 멀리 있는 풍경 바라보는 법을 가르친다.**

**혜원이 등장한다. 혜원은 진수와 진아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혜원: 나도 보여... 태풍이 할퀴고 지나가면 미풍이 다가와 쓰다듬은 자리...

가끔은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

**진수, 혜원을 돌아본다. 진수와 혜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진아, 혜원에게 반갑게 인사**

**하고 진수와 혜원을 번갈아보면서 장난스럽고 앙큼한 표정을 짓고는 퇴장하는 척하다가 무**

**대 먼 곳에 자리 잡고 진수와 혜원을 몰래 쳐다본다. 혜원, 수줍은 모습으로 진수에게 다가**

**간다. 진수, 설레는 표정으로 혜원을 본다.**

진수: 많이 기다렸지?

혜원: 기다림이 있어서 만남이 더 빛나는 거겠지.

진수: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너무 그리웠어.

혜원: 나도 그래. 만날 날을 알면서도 늘 그리워서 하루 낮 하루 밤 날짜를 세곤 했어.

진수: 미안해. 항상 날짜만 세게 하고.

혜원: 무슨... 돌아왔으니까 됐어. 이번엔 얼마나 있을 거야?

진수: (혜원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혜원아, 이번 여름이 지나면 난 곧 미국으로 떠날 거야.

**혜원, 놀라는 표정에 이어 불안,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곧, 감정을 숨기고 미소 짓**

**는다.**

혜원: 그래. 알고 있었어. 들었거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럼 영영 떠나는 거야?

진수: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응.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

혜원: 뭔데?

**진수, 작심한 듯 긴장한 표정을 한다. 한쪽 무릎을 꿇는다. 혜원, 당황한다.**

혜원: 왜 그래? 왜 바닥에 앉는 거야?

진수: 이렇게 하는 거야. 미국에선 이렇게 해.

혜원: 뭘?

진수: 청혼.

혜원: 뭐?

**진수, 웃옷 안에서 반지를 꺼내 보이면서 말한다.**

진수: 윤혜원, 나와 결혼 해 줘.

혜원: (당황하며) 뭐 하는 거야?

진수: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야. 나와 결혼해서 함께 유학가자. 자, 다시 한 번 말할게

(좀 더 크고 높은 목소리로) 나와 결혼 해줘.

혜원: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일어나.

**진수, 일어나지 않는다. 고집스러운 표정이다. 혜원, 서두르면서 대답한다.**

혜원: 할게. 할게.

**진수, 빈지를 꺼내 혜원의 손가락에 끼워준다.**

혜원: (감탄하면서) 딱 맞아.

진수: 난 내 눈을 믿어. 마음에 들어?

혜원: 마음에 들어. 항상 떠나기 전에 들꽃 반지 엮어 끼워주면 그 반지가 시들어 부서질세라 가슴 졸이면서 서랍에 넣어두었었지. 이제는 부서지지 않는 반지를 끼게 되었네...!

진수: 윤혜원, 그럼 우리 약혼 한 거다!

혜원: 약혼식도 안했는데 무슨 약혼이야?

진수: 그런 건 나중에 어른들 모시고 하고 너와 나는 정혼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로 불안해

하지 마. 다른 남자를 쳐다봐도 안 돼!

혜원: 알았어. 기뻐.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기분 내가 느껴도 되는 걸까?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진수, 혜원을 품에 안는다. 정일,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사라진다.**

혜원: 그러지 마. 누가 보면 어떻게 해?

진수: 아니, 누가 보든 상관없어. 이제 우린 결혼할 사이인데 뭐. 윤혜원, 사랑한다.

혜원: 나도 사랑해.

**진아, 등장한다. 장난스러운 표정이다. 혜원, 얼굴이 발그레 해지면서 수줍어한다.**

진아: (혜원에게) 볼이 복숭아마냥 분홍빛이네! 손가락 위에 반짝이는 건 뭘까요?

언니! 나도 보여줘! 응? 보여줘!

**진아, 혜원의 손 위에 반지를 본다.**

진아: 아이쿠! 눈부셔! 아, 너무나 낭만적이다! 나도 시집가고 싶다! 나도 미국식 약혼 하고 싶

어!

**세 사람은 크게 소리 내서 웃다가 셋이 함께 포옹하고 퇴장한다.**

**며칠 뒤. 금빛 휘황찬란했던 무대는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

**영하듯 자연조차 어둠이 드리워져있다. 밝게 웃던 사람들은 다가올 공포에 불안한 모습으로**

**우왕좌왕한다. 여자들은 저마다 아이들을 치마폭에 감싸거나 남편을 찾고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아우성이다.**

마을사람 1: 전쟁이 날 거래!

마을여자 1: 전쟁? 그럴 리가!

마을사람 2: 전쟁이 날 거래! 나도 들었어! 중공 놈들이 쳐들어 올 거리는구먼!

마을 여자 2: 그게 무슨 소린가?

마을사람 3: 벌써 빨갱이 된 놈들이 많아! 나라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서로 치고받고

싸우자는 거야?

마을사람 4: 우리 같은 상놈들은 괜찮은데 송 부자 댁이나 윤 부자 댁 같은 양반네들은...

마을여자 1: 이 사람아 양반 상놈이 어디 있나?

마을사람 4: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런 부자들이 먼저 죽는다는구먼!

마을사람 3: 이보게들! 잔소리들 말고 어서 처자식들이나 챙기세!

마을여자 2: 이렇게 된 거 내 피붙이들부터 살리고 봐야지!

마을사람 2: 사내놈들은 징병 갈수 있고 계집애들은 일정시대마냥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어

서 짝이나 지어봄세!

**송 부자 집, 윤씨 부부가 진수의 집으로 간다. 송씨 부부의 움직임도 어수선하다.**

윤씨: 이보게, 송씨.

송씨: 그래 왔는가?

윤씨 부인: 부인!

송씨 부인: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윤씨: 딸 가진 부모가 이런 말 먼저 해서 뭣하지만 애들을, 어서 혼인 시키세!

송씨: 이심전심이로구만! 혼인 시켜서 어서 애들을 남으로 내려 보내야해. 진수가 미국으로

갈 거니까, 애들부터 미국으로 보내세! 우리도 뒤따라가면 되는 거고!

**마을 사람들,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불안한 정국에 치르는 결혼식이라 형식적으로 갖출 것**

**이 별로 없다. 정일, 결혼 준비를 본다. 진아, 정일에게 말한다.**

진아: 짝지 없어?

정일: 뭐라고?

진아: 오빠도 어서 짝지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징용 간다는데? 오늘 울 오라비랑 혜원 언니 결혼하니까...

**정일, 결심한 듯이 어딘가로 사라진다.**

진아: 국수라도 한 그릇...

**진아, 주위를 둘러본다.**

진아: 어디로 사라졌지?

**송 부자 집 마당, 부모들이 노래할 때 간소하게 차려진 음식상을 사이에 두고 진수와 혜원의**

**결혼식이 거행된다. 장식 없는 흰 원피스 형 드레스에 서양식 면사포를 쓴 혜원과 양복 입은**

**진수가 등장한다.**

송씨: 불안할 때 자식 결혼 시키려니 부족함이 많아. 마음이 아프군.

윤씨: 언젠가 치를 혼인이었지만 경사보다 슬픔이 더 크구만. 가슴이 미어지네.

송씨 부인: 그래도 아이들을 안전한데 보내야하니 마음 아파도 참아야지요.

윤씨 부인: 경사로운 만남이 곧 헤어짐의 시작이 되겠군요.

송씨: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상황이 나아지면 그 때 다시 모든 걸 갖추고 호화롭게 식

올리세!

윤씨: 그러세!

**진수와 혜원이 결혼하는 뒤로 마을의 다른 젊은 남녀들도 서둘러 결혼하는 광경이 보인다.**

**이들은 진수, 혜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허름한 모습이다.**

마을 사람 1: 간소하게! 간소하게!

마을 여자 1: (물 한 그릇을 떠서 젊은 남녀들 사이에 두고 맞절을 시키며) 마음은 다

해주고 싶어도 간소하게!

**결혼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 중 남자가 진수의 겉옷을 벗기고 여자가 혜원의 면사포를 벗기**

**고 퇴장한다.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진수와 혜원, 둘만이 무대에 남는다.**

진수: 우리 둘 뿐이네. 조금... 어색한가?

혜원: (몹시 수줍어하면서) 조금...

**진수, 혜원에게 다가가 안아준다.**

진수: 불안한 건 잠시 미루고 오늘은 서로만 보자. 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 다 괜찮아.

혜원: 응. 알았어...

**진수, 혜원의 올림머리를 내린다. 혜원의 머리칼이 어깨를 덮는다. 진수는 혜원의 머리칼을**

**한 손에 담고 향기를 맡는다.**

진수: 머리칼이 물결처럼 흐르는구나. 구름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나.

오늘 밤은 평화롭게 보내자.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진수와 혜원, 포옹한다. 무대 어두워진다.**

**다음 날 아침, 송씨 집안의 마당에는 진수와 혜원을 남쪽으로 보내기 위한 세간이 준비되어**

**있다. 곧 남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진수와 혜원은 먼저 남쪽으로 향한다.**

**진수와 혜원이 떠난 뒤,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얼마 안 되어 공산군이 연백까지**

**온다. 마을은 온통 난리가 난다.**

송씨: 지주를 먼저 죽인대! 여보, 진아 어디 있소?

송씨 부인: 진아야, 진아야!

진아: 곧 가요!

**수철, 송씨 집안 앞으로 지나간다.**

송씨: 아, 수철이가 아니냐? 윤 부자 댁 수철이지?

수철: 예! 어르신.

송씨 부인: 사돈은 어찌 되셨소?

수철: 오늘 아침에 끌려가셨어요!

송씨 부인: 벌써?

송씨: 진아를 데리고 가다오! 부탁이다!

진아: 어머니- 아버지- 나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송씨: (수철에게 종이를 건네며) 진수가, 인천에 있다. 여기 주소가 있다. 진아를 제발 데려다 다오.

수철: (종이를 받아들고 진아의 옷소매를 잡아끌며) 꼬매! 꼬매! 어서 와! 꼬매- 꼬매-

어서----

진아: 아버지! 어머니!

**진아, 수철의 손에 끌려 달아난다. 진아가 퇴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씨 부부가 공산군에**

**의해 잡힌다. 공산군은 발길질과 총대로 무지막지한 폭행을 한다. 수철의 손에 끌려가던**

**진아는 넘어지고 다리에서 피가 흐른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수철과 진아, 진아는 다리를 전**

**다. 수철, 진아를 나무 위로 올린다.**

수철: 꼬매. 꼬매. 나무로 올라가.

진아: 뭐?

수철: 나무로 올라가라고! 공산군이 오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내 목숨도 오락가락하이.

어서 올라가! 숨어 있다가 공산군들 지나가고 나면 내려와! 내 저기 숨을게!

**진아, 수철 손에 밀려 나무위로 어중간하게 올라간다. 수철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숨는다. 진아, 멀리서 공산군 무리가 오는 소리를 듣고 힘겹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

**진아가 나무 위에 숨었을 때 공산군 무리가 몰려온다. 그들은 삽자루를 들고 있다.**

진아: 저 삽은 우리 집 것이고 저 삽은 혜원 언니네 것인데...

**공산군 무리, 삽질을 시작하자 한순간에 커다란 구덩이가 형성된다. 구덩이를 팔수록 옆에**

**흙이 쌓인다. 지휘관이 와서 소리친다.**

공산군 지휘관: 땅속 깊이 구덩이를 파라! 반동분자들의 피와 뼈를 묻어버릴 구덩이를 파

라! 지주들은 배부르게 땅을 파먹고 살았다! 이제 저것들을 묻어버릴 때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 주로 지주들이 줄을 서서 끌려온다. 공산군 중에는 소작농도 섞여 있다.**

**이씨는 머리에서 피를 쏟고 있다. 공산군 군복을 어설프게 걸친 소작농 한명이 이씨를 폭행**

**한다. 이씨의 부인이 막지만 소용없다. 공산군 한 명이 이씨를 끌고 구덩이 앞으로 온다.**

공산군 지휘관: 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인민군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를 주겠다.

여기 이 지주 놈의 목을 쳐서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자가 있나? 마지막 기회다. 목숨

도 건지고 위대하신 장군님께 충성하는 영광스런 길이다!

**정일, 삽을 든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정일을 보고 놀란 이씨, 쥐**

**어 짜내듯 고함을 지른다. 공산군 지휘관, 정일에게 장검을 준다. 장검의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다.**

이씨: 자기 주인의 목에 총칼을 겨누고 있다니! 이놈! 배은망덕한 놈! 구걸하는 일가족을 거

둬 들였더니! 은혜도 모르는 놈! 하늘이 천벌을 내릴 거다!

**정일, 커다란 검을 들어 올리더니 망설임 없이 이씨의 목을 내리친다. 잘린 머리가 먼저 구**

**덩이로 떨어진다. 지휘관, 머리 없는 시체를 발로차서 구덩이로 떨어뜨린다. 일순간 기이한**

**적막이 주변을 감싼다. 뒤이어 이씨 부인이 날카롭게 울부짖고 마을 사람들이 오열한다.**

**공산군 두 명이 이씨의 부인을 구덩이 앞으로 끌고 온다. 정일은 이씨 부인의 목도 내리친**

**다. 진아, 부들부들 떨며 양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는다. 멀리서 보던 수철도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다. 정일, 마치 뭔가에 씌인 것처럼 마을 어른들의 목을 친다. 지휘관이 말할 때 마**

**다 공산군들이 복창한다.**

공산군 지휘관: 지주들의 목을 쳐라! (목을 쳐라!)

지주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몰수하라!)

풍성이 가꾼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라!)

공산군들: 목을 쳐라! 목을 쳐라!

**정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묵묵히 처형을 계속한다. 송씨 부부의 차례가 되고 부부**

**는 진아가 보는 앞에서 목이 잘린다. 처형식이 끝나고 공산군은 구덩이에 흙을 퍼 넣는다.**

**지휘관, 정일에게 온다.**

지휘관: 동무는 지금 이 시간부로 승급이다. 알았나? 시체가 눈에 띄지 않게 흙을 잘 덮어야

한다. 썩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단단히 덮어라. 싹 치우고 나서 동지들과 복귀하라.

정일: 예. 알겠습니다.

**지휘관, 떠난다. 정일을 제외한 세 명의 공산군을 남기고 다른 공산군들은 지휘관을 따라 퇴**

**장한다.**

진아: (독백) 몸뚱이만 남은 저것이 피 칠갑을 한 저것이 나의 부모가 맞나---

피에 젖은 저 웃옷은 분명 나의 아버지 옷인데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다---

**정일, 포함한 공산군이 구덩이 메우는 일을 마치고 다시 행군을 시작할 때 쯤 진아가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 공산군 중 일부는 진아에게 총을 겨누고 한 명이 목을 치려한다. 그 때 정**

**일이 나서면서 막는다.**

정일: 무슨 일이냐? 죽이지 마라. 지금 목을 치면 땅을 다시 파야한다.

공산군 1: 이 계집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일, 진아를 살펴본다. 진아는 혼이 나간 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진아: (정일을 보더니 갑자기) 오빠?

**정일이 뻣뻣하게 굳는다. 진아, 정일에게 매달린다. 공산군, 진아를 떼어내려 한다. 정일, 한**

**손을 들어 막는다. 공산군들, 제 자리에 선다. 모두가 진아를 바라본다.**

공산군 2: 아는 사람입니까?

정일: ...

진아: 오빠? 언제 왔어?

정일: ...

진아: 진수 오빠...? 혜원 언니는?

공산군 2: 가스나... 정신 나갔구만!

진아: (공산 군 중 한 명이 어깨에 멘 장총을 만지면서) 붓이다, 붓! 그림 그려주게?

정일: 끌고 가라.

공산군 2: 하지만...

정일: 끌고 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곱게 자란 지주의 딸인 것 같으니 훈련시키면 선전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여차하면 나중에 죽여도 된다.

공산군들: 예.

**공산군 1, 총의 개머리판으로 진아의 뒤통수를 내리 친다. 정일, 움찔한다. 진아가 기절하자**

**다른 공산군이 진아를 들쳐 업고 퇴장한다. 수철, 뒷걸음질 치며 퇴장한다.**

**진수와 혜원의 인천 집. 수철, 몰골을 하고 등장한다.**

진수: 수철아!

수철: 형님!

진수: 어째서 혼자인 거냐?

수철: (울먹이면서) 형님! 대감도! 마님도! 모두 공산군 손에 ...!

진수: 뭐라고? 진아는?

수철: (잠시 당황하다가) 진아 꼬매도... 그만!

**진수, 무너져 내린다. 혜원, 그를 부축한다.**

진수: 두고 오는 게 아닌데!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수철: (혼잣말로) 죽었을 거야... 진아 꼬매는 죽었을 거야...

진수: 무능한 나를 저주하고 저주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입대... 하겠어.

혜원: 그게 무슨...?

진수: 도망칠 수는 없소. 부모도 피붙이도 잃고 땅도 잃었소! 당신의 부모도 모두 공산군의

손에 처형당했소! 돌아갈 땅이 없으면 우리의 앞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혜원: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진수: 곧 다시 만날 거야. (수철에게) 혜원이를 데리고 시흥으로 가라. 혜원이의 이모 댁으로

가라. 알겠지?

수철: 알았소.

**진수, 혜원을 품에 안았다가 놓고 떠난다. 혜원, 진수의 뒷모습을 보면서 수철에게 부탁한다.**

혜원: 수철아. 내 부탁을 들어다오!

수철: 뭔데요, 꼬매?

혜원: 내 남편의 뒤를 따라가다오!

수철: 꼬매를 지켜야 하는데! 진아 꼬매도 지키지 못했는데 혜원 꼬매라도 지켜야하오!

혜원: 아니다. 공산군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시일이 걸릴 거다. 내 남편을 따라가 다오!

네가 가면 난 안심할 수 있어! 내 소원이다!

수철: (결심한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진수 형님을 도와야지 진아 꼬매를 부탁한 송

씨 대감에게 빚을 갚는 길!

혜원: 살아 돌아 와다오, 그 분과 함께 돌아 와다오!

수철: 알았소! 나도 남자요! 나도 조국을 위해 한 몸 바치겄소!

**수철, 진수의 뒤를 좇아 퇴장한다.**

혜원: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당신이 알겠어요?

누군가는 피흘리고 누군가는 죽어가도 당신은... 살아서 돌아와요. 돌아와야만 해요.

제발... 내게 돌아와줘요, 제발... 돌아와줘요...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전권이 오가는 과정을 안무와 영상으로 표현한다.**

**국군 대 북한군, 미군 대 중공군의 전투 장면이 번갈아 벌어진다.**

**시흥, 혜원은 이모 댁에 도착한다. 이모 댁은 황량하다. 혜원, 몰골에 움직임이 둔하다.**

**걷다가 배를 잠시 손바닥으로 짚기도 한다.**

혜원: 이모....

이모: 누구요...

**혜원, 반가운 마음에 이모에게 가서 와락 안긴다. 하지만 이모는 혜원을 밀쳐낸다.**

이모: 누구요...!

혜원: 이모... 저예요... 혜원이...

이모: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아하! 너로구나... 언니는?

혜원: 이모... 엄마도 아빠도 모두 ... (말을 잊지 못한다)

이모: 하... 그래...? (냉담하게) 니 에미가 죽었구나! 부자에게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죽었구나! 내 남편은 비명에 죽고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게 살았는데...!

혜원: 이모! 난 갈 곳이 없어요! 석 달을 길에서 헤매었어요!

이모: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어! 여길 봐!(산더미 같은 더러운 빨래 더미를 가리키며)

양색시년들 빨래나 해주고 살고 있다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아? 그년들이 낙태한 양놈들

애새끼들 시체까지 묻어주고 산다고! 입에 풀칠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혜원: 이모! 제발요! 갈 곳이 없어요! 빨래 제가 할게요! 제발! 식모라도 시켜주세요!

이모: 그래?

**이모, 혜원 앞에 빨래며 일감을 내놓는다. 혜원, 빨랫감에 달려들어 손빨래를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뒤바뀐다. 몸이 무거워진 혜원은 땀을 닦으며 여전히 손빨래를 하고 있**

**다. 이모, 혜원에게 온 편지를 몇 차례 찢어버린다. 이모, 밖에서 돌아오며 빨랫감을 잔뜩 들**

**고 들어온다.**

이모: 언제쯤 이 더러운 양공주년들 치다꺼리좀 그만할 수 있으려나...

**혜원,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보고 한숨 쉰다. 이모, 한손에 들고 있던 자루에 든 것을 혜원**

**쪽으로 던진다.**

이모: 오늘 현옥이년 애 뗐다. 밤에 산에 갖다 묻어.

**이모, 밖으로 나간다. 혜원, 더러운 빨랫감과 낙태한 애 시체를 보고 구역질을 한다.**

혜원: 아아... 전쟁보다 차가운 마음이 더 무섭구나.

**이모, 뒤돌아 나가다가 다시 들어온다. 혜원의 팔을 낚아채 몸을 펴게 한다. 혜원, 기우뚱 하**

**면서 잔뜩 부른 배의 모양이 나타난다.**

이모: 뭐야? 얼마나 먹어대면 배가 저리 나오나 했더니만! 대체 어느 놈의 애를 밴 거냐?

그 새 양키 놈들하고 붙어먹은 거냐?

혜원: 이모, 사실은 저 결혼 했어요.

이모: 언제? 어느 놈이랑?

혜원: 송 부자 댁 진수 씨와 결혼했어요. 피난 오기 직전에요.

이모: 하! 그래? 내 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이 펄펄 끓더니 그 날을 못 넘기고 죽

었는데 너는 처녀로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애도 뱄구나! 네 애까지 키울 여력 없어! 내

일 당장 떼! 안 그러면 양놈 손에 입양 보내버릴 거야!

혜원: 이모!

이모: 허구헌 날 죽은 애새끼들 치워대면서 제 새끼는 살릴 생각한 거냐? 현실이 안보여?

혜원: 이모!

**혜원, 한 밤 중에 기지촌 여성이 낙태한 아이의 시체가 담긴 보퉁이를 안고 산을 오른다. 작**

**은 나무를 발견한 혜원은 그 아래 아이의 시체를 묻는다.**

**무대의 2층 오른 쪽, 밝아지면서 진수, 지친 몸으로 막사로 돌아온다. 편지를 쓴다. 연락병에**

**게 편지를 건넨다.**

혜원: 다음에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부자 부모 밑에서 화목둥이로 태어나라.

**혜원은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발걸음을 내딛는다. 갑자기 양수가 터진다.**

혜원: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려야하는데...아아...!

**혜원은 간신히 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곧이어 커다란 나무 아래 주저앉고 만다.**

**무대의 2층 오른 쪽, 진수, 지친 몸으로 다시 편지를 쓴다. 연락병에게 편지를 건넨다.**

**혜원은 비명을 지른다. 무대 어두워진다.**

**무대 2층 이전보다 좀 더 밝아진다. 진수, 편지를 쓴다. 또다시 건넨다.**

진수: 제발 이번만큼은 답이 오기를... 사랑하는 나의 연인, 나의 아내... 살아만 있어다오!

**진수, 연락병에게서 편지를 받는다. 뛰어오를 듯 기뻐하며 편지를 읽다가 슬픔에 잠겨 오열**

**한다.**

진수: 아아아! 혜원이가 죽었다니!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니! 아이가 생겼었다니...! 얼마나 무

서웠을까... 하늘에 떠 있는 달아! 가엾은 나의 연인을 품에 안아다오! 그녀를 보듬어 주시오!

**절규와 함께 1막이 내린다.**

2막

**[ 지문 삽입: 1년의 시간이 더 흐른다. 북한군 저격수 ‘반달’의 등장으로 국군은 수세에 밀**

**린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저격수의 반만 드러난 얼굴을 보고 반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반**

**달은 검은 천으로 얼굴이 반을 가리고 다니며 정확히 희생자의 오른 쪽 눈을 쏘아 맞춘다.]**

**국군들, 행군 도중 간이 막사를 친다. 어둠 속에서 잠시의 여유를 즐긴다. 드문드문 미군들도**

**섞여 있다. 수철, 천을 허리에 두르고 여자 흉내를 내면서 나오더니 노래를 부른다.**

수철: 초코렛! 초코렛! 미제 초코렛!

초코렛! 하나면 전쟁은 먼 세상 얘기!

초코렛! 초코렛! 마데 인 유 에쓰에이!

초코렛! 하나면 마릴린 먼로로 필요 없어!

진수: (화내면서) 뭐하는 거야?

수철: (능청스럽게) 형님. 이 동생이 피로를 좀 풀어주고 있는 거요! 저기 아랫녘에는 마릴린 먼로가 와서 양키 놈들 앞에서 이렇게 푸둥푸둥한 젖통도 흔들어대고 궁디도 흔들어대고 노래도 했다잖소!

**수철, 또 다시 능글맞게 웃으면서 춤춘다. 진수,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미군 병**

**사가 진수 곁으로 오고 함께 웃는다. 그 때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온다. 미군 병사 한명이**

**오른 쪽 눈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분위기가 뒤바뀐다. 수철, 천을 던져버리고 진수를 보호한**

**다. 진수도 수철을 보호하려 한다.**

국군 1: 저격수다!

국군 2: 반달이다!

국군들: 반달이 나타났다!

**허공에서 날아온 총알에 국군이 하나 둘 쓰러진다.**

**진수,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을 찾고 총을 쏜다. 위치가 발각되자 저격수는 사라진다. 아수라**

**장이 된 국군 막사 안에서 살아남은 국군들이 하나 둘 일어선다.**

국군 사령관: 아들 같은 군인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다! 놈의 눈에 총알을 박으리라!

어둠의 귀신을 잡을 자가 누구냐!

진수: 제가 나가겠습니다!

수철: 형님!

국군 사령관: 이름이 무엇이냐?

진수: 송진수 입니다!

국군 사령관: 총을 잘 다루는가?

진수: 총을 잘 다루고 누구보다 눈이 좋습니다!

국군 사령관: 믿어도 되는가? 적을 죽일 수 있는가?

진수: 믿어주십시오! 더 이상 적의 손에 전우를 보낼 수 없습니다. 반달이 멀리 달아나기

전에 잡겠습니다.

국군 사령관: 우리는 한 달 안에 백마고지를 차지해야한다. 너는 그 전에 반달의 숨통을

끊어라!

진수: 예!

수철: 형님....

진수: 괜찮다. 내가 눈이 좋으니 잘 할 수 있다.

수철: 하지만...

진수: 수철아. 혜원이도 진아도 부모님들도 모두 저 세상으로 가셨다.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도 저 세상으로 갔어. 내가 원수를 죽이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다면 어찌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겠니. 내 목숨은 이미 없는 것이다.

수철: 형님....

**진수, 울먹이는 수철의 등을 두드리며 달랜다. 국군 병사들, 진수에게 저격수용 총을 들려**

**주고 진수는 멀리 있는 사물을 쏘는 연습을 한다.**

수철: 부드러운 붓 잡고 오색찬란한 풍경을 옮기던 손인데! 붉은 피로 적을 덮을 무거운 총을 잡았구나...! 아아...!

**무대 2층 왼 쪽이 밝아온다. 미군 캠프 타운 근처 한국인 기지촌 여성들이 모여사 는 집 마**

**당. 혜원, 빨래를 마무리한다. 기지촌 여성 제인(한국인), 아이를 안고 어르고 있다. 혜원,**

**방 안으로 들어온다.**

혜원: 고마워요, 언니.

제인: (영어 억양 섞인 말투로 세련된 척하며) 고맙긴. 항상 우리 뒷일 봐줘서 우리가 고맙

지.

혜원: 아니에요. 신세지면 안 되는 것 알아요. 제가 있으면 폐가 되잖아요.

제인: 오, 허니. 그런 말 하지 마. 여기 오는 양키들도 다 디스 스위티 보고 유순해진다고. 그

리고 너 여기서 나가봤자 갈 데도 없잖아.

혜원: 이모님을 찾아가야...

제인: (거친 아줌마 말투로) 아이고, 네 이모 년이 퍽이나 너 거두겠다. 너 여기 있는 동안

네 물건 팔아서 내뺀 여편네야. 나타샤가 시침 뚝 떼고 너 어디 갔냐고 했더니 양키랑 눈 맞

아서 런어웨이 했다고 그랬다니까. 너 죽었다고 얘기하고도 남을 여편네라고! 절대 찾지 마.

여기 언니들 임신하면 입양 보내준다고 브로커 자처하는 게 니 이모 년이야. 얼마나 인정머

리 없는지 알아? 애 떼라고 낙태 산파 붙여 주는 것도...

**혜원, 거북한 표정을 짓는다.**

제인: (당황한 듯이 머리를 매만지면서 다시 영어 억양 섞인 말투로 차분하게 ) 어머... 나 좀

봐. 미안, 쏴리 쏴리. 베이비 듣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하다니... 얘, 우리야 아래 입 팔아서 윗

입 풀칠하는 팔자들이지만 넌 그냥 해주던 대로 빨래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면서 지내.

혜원: 하지만 벌써 일 년 넘게 신세지고 있는데...

제인: 우리도 빨랫감 모아뒀다가 보내고 그러는 거 손가셨어. 니가 그때그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라도 돌리지. 아휴... 넌 정말... 그 날도 그래. 원, 산에서

널브러져있으면 어쩌니? 요 예쁜 걸 가랑이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랑이로 제 애 목 졸

라 죽일 뻔한 에미년이야, 넌!

**혜원, 제인의 말이 거칠어도 농담이라는 것을 알고 웃는다.**

제인: 처웃기는! 뻔뻔한 년! 아무튼 앞으로도 니가 살림 좀 해. 알겠지?

혜원: 네! 알겠습니다!

**제인, 퇴장한다. 또 다른 기지촌 여성 나타샤가 서툴게 쑨 오트밀이 담긴 그릇을 들고 방으**

**로 들어온다.**

나타샤: 좐슨이 오트밀 가져왔어. 자기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만들어봤어.

이것 좀 먹어 봐. 애도 먹이고.

혜원: 어머나! 이 귀한 걸! 나타샤 언니, 지난번에는 콜라도 줬잖아요! 고마워요!

나타샤: 펩시였는데 뭘... 코오크도 아닌데 뭐가 고마워...

혜원: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나타샤: 펩시든 코오크든 얼마든지 가져다 줄게.

혜원: 아유, 아니예요. 언니 드시고 남으면 저 한입만 주세요.

나타샤: 혜원아. 내가 더 고마워. 혜원이가 묻어준 내 아기...

혜원: 아....

나타샤: 하지만 낙태한 건 아니었어.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임신한지도 모르고 몸을 굴렸어.

한 푼이라도 벌어야하니까. 그 날 받은 손님이 배를 걷어찼는데, 뭐, 이런 일 하면서 얻어 맞

는 건 흔한 일이고... 그냥 참았지. 그러다가 혼절을 했는데 깨어보니까... 사정사정해서 물었

더니 빨래 이모가 처리한다고 아기 사체를 가져갔다고... 한밤중에 산을 헤매었어. 빨래 이모

가 산 에다가 애기들 갖다 버린다고 했던 말을 들은 일이 있거든. 그런데 산중턱에 네가 쓰

러져 있더라. 바로 옆에 새로 만든 흙자리 보고 거기가 내 아기 잠자리라는 걸 알았어. 산통

에 기절 할 지경이면서 내 아기 잠자리를 그렇게 곱게 만들어주어서 고마워. 내가 했어도 그

렇게 곱게 재워주긴 어려웠을 거야... 정말 고마워...

혜원: 고맙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나도 고마워요. 나타샤 언니가 나를 데려와 주지

않았다면...

**혜원, 아이를 바라본다.**

나타샤: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같이 힘주고 아기 낳게 하고 부축해

서 데려왔지. 혜원이가 의식이 없으면서도 아기를 품에 꼭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보고 꼭 내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

혜원: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타샤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갈 곳도 없고 죽었을지도 몰

라요. 정말 고마워요.

나타샤: 어서 먹어봐. 아기랑 꼭 건강하게 살아야 해. 북에서 왔다고 들었지만 아기는 남에서

태어났으니 아기에겐 여기가 고향이잖아.

**나타샤, 혜원의 어깨를 두드리고 퇴장한다. 혜원, 아이를 안고 어른다. 아이는 곧 잠든다.**

혜원: 여보... 딸이예요. 이렇게 천사처럼 잠들었어요. 딸.... 이 난리에 어찌 살아남을지... 난

이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만 해요.. 당신도 살아 돌아와야만 해요... 우린 꼭 만날

거예요... 우리 딸 이름은 당신과 내 이름 엮어서 혜진이라고 지었어요... 혜진아... 귀한 내

딸... 내 아가... 아빠는 꼭 살아 돌아 오실거야... 아빠는 너를 보러 꼭 오실 거란다... 그러니

너랑 나랑 조금만... 조금만 버티자... 힘내자... 착하지... 하늘에 떠 있는 달아... 나의 남편을

지켜주고 그의 길을 열어다오! 우리에게 그를 인도해다오!

**혜원, 혜진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른다.**

혜원: 혜진아, 혜진아... 내 아가야... 우리 아가야...

깊게 부드럽게 날갯짓하는 천사들 틈에 잠들어라

아무런 일도 없이 난 너를 보호할 터이니 잠들어라

**무대가 어두워진다.**

**막사. 이른 새벽. 아직 검푸른 어둠이 하늘을 덮고 있고 안개가 옅게 깔려 있다. 반달에게 저**

**격당해 죽은 국군들과 목 없는 귀신들이 잠들어 있는 진수 주변에 등장한다. 진수는 소스라**

**치게 놀라 눈을 뜬다. 귀신들, 일제히 사라진다. 진수, 식은땀을 닦으며 일어난다.**

진수: 또 악몽이군... (주변을 둘러본다) 안개... 반달이 움직이겠군. 망설이면 놓친다.

(아직 잠들어 있는 전우들을 내려다보며) 내가 길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수철을 쳐다보며) 못난 놈. 많이도 자랐네. 내가 죽더라도 넌 꼭 살아남아라.

**진수, 저격수용 총과 장비를 챙겨 나선다. 수철, 잠든 척 하다가 일어난다.**

수철: 형님을 혼자 보낼 수는 없지.

**수철, 총을 들고 진수의 뒤를 몰래 따라간다.**

**고지 주위의 산봉우리. 진수, 봉우리 근처에 다다르자 자세를 낮추어 기어서 봉우리로**

**올라간다. 그는 자세를 잡고 반달이 숨어 있을만한 반대편 봉우리를 살핀다. 그리고 흠칫 놀**

**란다. 반대편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반달이 보인 것이다.**

진수: 무거운 새벽어둠 속에도 흑진주처럼 빛나는 하나의 눈동자... 반달...

미동 없는 저 모습. 어깨가 좁고 몹시 말랐다. 소년병인가?

**수철, 진수의 뒤편으로 다가선다. 순간, 반달이 초점을 바꾸며 수철을 쏜다. 얼떨결에 진수도**

**총을 쏘고 진수의 총알은 반달을 스친다. 반달, 몸을 비틀면서 쓰러진다. 반달의 얼굴을**

**가렸던 검은 머플러가 떨어진다. 진수, 위험도 잊을 채 벌떡 일어선다. 한쪽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반달은 진아였다.**

진수: 아, 저 아이는! 진아, 진아! 내 동생! 너와 이런 곳에서 마주치다니! 살아 있었구나!

**진아의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난다. 진아를 감시, 엄호하기위해 매복하고 있던 북한**

**군이다. 진수는 북한군을 쏘고 북한군은 굴러 떨어진다. 정일, 등장한다. 정일, 진수가 있는**

**방향으로 총을 쏘면서 진아 쪽으로 간다. 진수, 바위 뒤로 몸을 숨긴다.**

정일: 왜 쏘지 않는 거냐? 당장 쏴라!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해 방아쇠를 당겨라.

진아: 못 쏘겠소!

**정일, 진수가 몸을 숨긴 사이 진아를 잡아 일으켜 숲 속으로 사라진다. 진아, 무언가에 홀**

**린 듯이 진수 쪽을 바라보면서 정일에게 끌려간다.**

진아: (정일에게) 오빠!

정일: 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진아: 대장님! 저 사람은 누구?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저 사람은 날 보고도 총을 쏘지 않았소! 쏠 수 있었는데도!

**진수, 정일을 겨냥해서 쏜다. 정일, 주먹으로 진아를 때려 기절 시킨 후 방패처럼 진아를**

**둘러메고 퇴장한다. 진수, 그 장면을 보고 흥분하지만 진아를 쏘게 될까봐 총을 거둔다.**

진수: 저 놈... 낯이 익는데... 진아야... 네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됐어...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라. 오빠가 데리러 갈게...

**진수, 산을 내려오다가 수철의 시체를 본다.**

진수: 수철아...! 수철아! 아아아!

**진수, 오열한다.**

**진수, 수철의 시체를 둘러메고 아직 숨이 붙어 비틀대면서 걷는 북한군 포로에게 총을 겨누**

**고 막사로 복귀한다. 국군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다. 국군들은 선뜻 다가가**

**지 못한다. 국군 사령관이 다가선다.**

국군 사령관: 송진수!

**진수, 멈춰 선다. 국군 사령관이 손짓하자 국군 병사가 다가와 진수의 어깨에서 수철을 떼어**

**내어 들고 간다. 진수, 얼이 나간 표정이다.**

국군 사령관: 고생했다. 쉬어.

**진수, 포로를 총 끝으로 찍어 넘어뜨린다.**

진수: 이 놈, 제가 좀 데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국군 사령관: 총은 반납해라.

진수: 예.

**진수, 총을 옆으로 들어 올리자 국군 한 명이 받아든다. 국군 사령관의 손짓에 따라 모두**

**퇴장한다.**

진수: 반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포로, 우물거리면서 대답하지 않는다. 진수, 다가가서 포로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본다.**

**포로, 진수의 시선을 피하고 잠시 후 입을 연다.**

포로: 이년 전 쯤에 황해도 지주들을 떼로 죽인 일이 있소... 그 때 한 가스나가 나무 위에서

굴러 떨어졌소.... 눈알에 초점이 없고 정신이 나갔는지 오빠...오빠...하면서 지휘관을 따랐소..

진수: 지휘관이 누구였지?

포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오. 지주들 목을 직접 쳐서 초고속 승급한 사람이오.

진수: (정일을 생각해내고 읊조린다) 정일... 정일.... 이부자 댁 정일이... 혜원이가 말했었지.

소름 돋는 사람이 있다고. 이부자 댁 소작농이라고...

**진수, 정일이 누구인지 생각해내고는 분노로 몸을 떤다. 하지만 화를 누르면 참고 다시 묻는**

**다.**

진수: 그래서, 그 가스나는 어떻게 됐지?

포로: 지휘관이 수용소로 보냈소...수용소는 지옥이오... 질긴 놈만 독한 놈만 살 수 있소...

가스나는 얼굴이 반반해서 수용소에 처넣을 때... 교관으로 간 동무가 가스나를 덮쳤는데...

가스나가... 살아남았소... 교관 동무는 목이 뜯겨져 나갔고 가스나는 얼굴 반이 찢겨나갔소...

그러고도 숨이 붙어 있었지... 가스나는 처형장에 끌려갔는데 그 년이 한참을 먼 곳을 노려보

는 거요... 뭘 그렇게 노려보나 했더니 김정일 동지가 서 있었소... 그가 처형을 중지시켰소...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면서... 가스나의 망가진 얼굴을 불로 지졌소... 가스나는 신음 한 번 안

내고 참더군.... 가스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꼭 산을 뚫어서 보는 것처럼 봤소... 김정일

동지가 가스나를 훈련시켰소... 눈은 하나인데 천개의 눈을 가진 양 가스나는 어둠도 숲도 뚫

어보았소... 내는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오금이 저렸지... 꼭 내 뼈마디라도 들여다 볼 수 있

는 것처럼 쳐다볼 때는 정말 무서웠소... 목표의 오른 쪽 눈만 골라 쏘더군... 꼭 자기의 잃어

버린 눈에 한이 맺힌 것처럼... 그년이 소문의 저격수요... 살인 기계... 괴물... 반달이요... 괴

물... 살인귀... 반달...

**진수, 포로의 목 바로 아래를 걷어찬다. 포로가 쓰러지자 올라타서 죽일 것처럼 주먹질을 한**

**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군들이 들어와 포로를 끌고 나가고 진수를 진정 시킨다. 진수,**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엎드려 흐느낀다. 밤이 된다.**

**진수, 자리에서 일어난다. 막사를 나선다.**

진수: 진아야... 오빠가 갈게... 기다려라.

**진수, 낮에 갔던 봉우리 근처에서 주변 지형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리고 봉우리를 지나 산**

**속으로 들어간다.**

**산 속의 외따로 떨어진 바위 동굴 속, 진아의 아지트. 진수, 들어간다.**

**진아, 총에 스친 어깨에 천을 둘러 감고 동굴에서 거적을 덮고 끙끙 앓고 있다. 곁에는 한**

**자루의 장총과 한 자루의 권총이 있다. 얼굴에는 정일에게 맞아 생긴 멍이 검붉게 올라와 있**

**다. 진수, 다가가 진아의 얼굴을 바라본다.**

진수: 살아 있다니 다행이다... 우리 다시 어릴 때처럼 살자..

**진수, 진아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기려 한다. 진아, 놀라며 눈을 뜬다.**

진아: 누구냐?

진수: 오빠야.

진아: 무슨 소리야? 오빠는 날이 밝아야 온다.

진수: 진아, 내가 오빠야.

진아: 난 진아가 아니야.

진수: 넌 송진아, 내 여동생이야.

진아: 거짓말 마. 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 인민군 반달이다!

**진아, 권총을 집어 겨눈다. 진수,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는다. 진아와 진수, 한데 엉겨 붙는다.**

**진수, 진아의 양 팔을 꽉 잡고 허밍으로 자장가 모티프를 노래한다. 진아, 순간 움찔하며 총**

**을 놓친다.**

진수: 생각나니? 내가 불러주던 자장가야.

**정일, 먹을 것을 들고 들어온다.**

진아: 오빠! 대장님!

**정일,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든 뒤, 진수에게 달려든다. 진수, 진아**

**를 보호하면서 정일에게 맞서며 말한다.**

진수: 진아야, 이 놈은 오빠가 아니야! 내가 오빠야! 이 놈은 널 이용하는 거야! 널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감시하는 거다! 저놈은 이부자 댁에서 부리던 놈이다.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놈이

야!

**진아,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정일: 뭐하나? 어서 쏴라!

**진아, 멍하니 진수를 바라보다가 자장가 모티프를 허밍 한다.**

진아: 오빠...? 진수 오빠...?

진수: 그래! 진아야! 기억나지? 내가,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야!

진아: 오빠...

**정일, 진수를 밀어젖히고 진아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깊게 찌른다. 진아, 반사적으로 몸을 돌**

**리며 정일을 쏜다. 정일, 비틀대며 장총으로 손을 뻗는다. 진아, 옆구리에서 단도를 빼낸다.**

**벌어진 입으로 타액과 섞인 끈적끈적한 핏물이 흐른다. 진수, 진아의 손에 있던 단도를 빼앗**

**아 정일을 찌른다.**

정일: (피를 토하며).... 세상은 바뀔 거다... 공평하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진아에게)

잊지 말아라. 넌 내가 만들었다. 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런....

**진아, 마지막 온힘을 다해 정일의 오른 쪽 눈을 쏜다. 정일, 엉덩이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앉**

**은 자세로 몸이 꺾이며 숨이 끊어진다. 진수, 진아를 품에 안는다. 진아, 진수의 품에 온전히**

**몸을 내맡긴 채 쓰러지듯 기댄다. 진수, 흉하게 일그러진 진아의 얼굴에 진수는 뺨을 맞대고**

**흐느낀다. 진아, 한 쪽만 남은 얼굴로 활짝 웃는다.**

진아: 오빠...

진수: 그래...

**진아, 피를 토한다. 하지만 웃는다. 진아의 기억은 진수가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던 옛**

**날로 되돌아간다.**

진아: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는데... 업어줘... 나 다 큰 척하지만 오빠 동생이

잖아... 오빠...

**진수, 흐느끼며 운다. 진아, 점차 시야가 흐려지면서 시선은 먼 곳을 향한다.**

진아: ...오빠, 저기 해 진다... 그려줘... 나도 그림 가르쳐줘...

진수: 그래, 오빠가 다 가르쳐주지... 오빠랑 집에 가자...

진아: 오빠... (웃는다) 오빠...

진수: 그래...

진아: 오빠... 노래... 노래 해줘... 자장가 불러줘... 나 졸려... 자고 싶어...

진수: 깊게 부드럽게 날갯짓하는 천사들 틈에 잠들어라

아무런 일도 없이 난 너를 보호할 터이니 잠들어라

진아: 오빠... 나 잠들어도 계속 자장가 불러줘... 어디 가지마... 가지마... 약속...

진수: 그럼. 약속할게... 오빠 아무데도 안 가.

진아: 오빠... 오...

진수: 깊게 부드럽게 날갯짓하는 천사들 틈에 잠들어라

아무런 일도 없이 난 너를 보호할 터이니 잠들어라

진아: 잠들어라... 라라라라....아아아아....

**진아, 진수의 자장가를 신음 섞인 허밍으로 따라 부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춘다. 진수,**

**진아의 숨이 멈춘 것을 알고도 계속 부른다. 진수, 흐느끼면서 어깨가 들썩인다. 무대, 어두**

**워진다.**

**종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린다. 무대 밝아진다. 조명, 밝지만 차갑다. 주위는 폐허다. 국군들, 피난민, 실향민 행렬이 이어진다. 실향민과 피난민들의 복잡한 심경마저 어우러져 괴리감이 든다. 진수, 국군 무리에 있다.**

실향민 1: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길...다 잃었구만....어찌하나...

실향민 2: 영영 못 돌아가는 것은 아니겄지...

실향민 3: 가서 뭐해? 부모 있고 피붙이들 있었으니까 고향이지! 이제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실향민 4: 대대로 일궈온 삶이라는 게 다 저기 윗동네에 있는데 이제 맨손이니 어찌 사나...

실향민 5: 마누라도 자식도 다 저 위에 있구만...

실향민 6: 난 그래도 아랫녘에 시집온 딸이 있어. 여기에 마음 붙이고 정붙이고 살려고!

**국군들, 행군을 멈추고 쉰다. 진수, 무리에서 빠져나와 마을 어귀 우물가로 한다. 작은 여자 아이, 주변을 두리번대며 훌쩍이면서 나타난다.**

진수: 혜원이가 살아 있었다면 내가 혜원이 곁에 있었다면 우리의 아이는 저 만큼 자랐겠지.

**진수, 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는다.**

진수: 아이야, 너는 누구니? 엄마는 누구니? 아빠는 누구니?

**진수, 아이에게 자장가를 허밍 해준다. 아이가 울음을 그친다. 그 때 혼비백산한 얼굴로 아이 엄마가 나타난다. 혜원이다.**

혜원: 혜진아! 혜진아!

진수: (아이에게) 네 엄마인가 보다.

**진수, 혜원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혜원, 진수를 본다. 조명, 서서히 온화하게 변한다. 진수와 혜원, 두 사람은 한 동안 서로를 바라본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선다. 혜진, 진수와 혜원을 번갈아 본다. 진수와 혜원, 두 사람은 마주보며 빙그레 웃는다. 혜진, 진수와 혜원이 웃는 것을 보고는 가르륵 소리 내며 웃는다. 막이 내린다.**

**마침.**